

야스기와 운파쿠 철강의 창업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서자, 급속하게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량의 철과 강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요의 대부분을 서양에서 수입된 근대식 용광로가 채우게 되자, 다타라 제철소의 경영자들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1899년에는 이 지역 제철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다타라 제철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5명의 기업인이 공동으로 운파쿠 철강 합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운파쿠 철강은 야스기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철강 생산뿐 아니라 오키와즈모에 있는 작은 철공소들의 공인 중개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수입 용광로를 사용하는 제철소는 대량의 철강을 생산할 수는 있었지만, 고급 금속을 생산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운파쿠 철강의 기술자들은 고효율 저비용으로 고급 금속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이를 전문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운파쿠 철강의 노력으로 고급 강철인 ‘야스기 특수강(YSS)’이 탄생했는데, 제품의 경도와 내구성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야스기 특수강은 특히 금속 공구와 면도칼, 볼베어링, 전자기기 등 정밀도와 균일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스기는 새로운 소재의 생산 거점이자 ‘강철의 도시’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